

박인비 “US오픈서 좋은 성적 올리겠다”

LPGA VOA 클래식 공동2위 ‘아쉬운 준수승’
유소연 “복귀전이라 긴장...우승경쟁해서 기뻐”

박인비(32)가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박인비는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더플로니의 울드 아메리칸 골프 클럽(파71)에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불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를 쳐 1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를 친 박인비는 유소연(30), 재미교포 노예림과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시즌 2승이자 KPGA 통산 21승에 도전했던 박인비는 아쉬움을 남겼다.

우승은 7언더파 277타를 친 앤젤라 스탠퍼드(미국)에게 돌아갔다.

박인비는 우승을 놓쳤지만, 이번 시즌 총 118만7229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섰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는 102점을 얻어 김세영(106점)을 바짝 추격했다.

박인비는 “오늘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하루였던 것 같다. 아무래도 US오픈 하기 전 샷감을 테스트하는 한 주가 된 것 같다. 이번 주는 여기에서 만족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음 주 대회는 이번 주 코스와 비슷한 컨디션일 것 같다. 바람이 좀 더 불고, 좀 더 추울 것 같다. 이번 주에 좋은 연습이 된 것 같고,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US오픈은 오는 1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골프장(파71)에서 개최된다.

유소연 역시 준수승의 아쉬움을 US오픈에서 풀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유소연은 “복귀전이라 조금 긴장했었다. 한국에서 경기를 몇 차례 하기는 했지만 LPGA 투어 대회는 오랜만이라 긴장했던 것 같다. 그래도 끝까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솔직히 마지막 27개 홀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2위로 끝낸 것은 좋다. 돌아와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US오픈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메이저 대회는 항상 긴장이 된다. 언제나 힘든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유소연은 약 2년 6개월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한편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최종합계 4언더파 280타로 5위를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서선욱기자



박인비



손흥민이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1라운드 아스널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전반 리그 10호 골을 비롯해 추가 시간 해리 케인의 골에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 5시즌 연속 두자리수 골 토트넘 역대 3번째 ‘대기록’ 달성

토트넘, 아스널 2-0 승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북런던 더비’에서 환상골을 터트린 손흥민(28·토트넘)이 5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0~2021 시즌 EPL 11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으로 토트넘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전반 13분 역습 찬스에서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 환상적인 오른발 갑아차기 슈트로 선제골을 터트렸다. 이어 전반 추가시간에 감각적인 패스로 케인의 추가골까지 도왔다.

아스널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손흥민은 후반 43분 루카스 모우라와 교체됐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5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도 성공했다.

2015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은 데뷔 시즌 정규리그 4골로 부진했다.

하지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신인 속에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2016~2017시즌 리그 14

골로 팀 내 간판 골잡이로 자리를 굳혔다. 이는 손흥민의 EPL 한 시즌 최다골이기도 하다.

첫 리그 두 자릿수 골을 달성한 손흥민은 2017~2018시즌(12골), 2018~2019시즌(12골), 2019~2020시즌(11골)까지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시즌엔 11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 단일 시즌 ‘10·10’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북런던 더비에선 두 시즌 연속 10호골을 넣는 진기록도 세웠다.

손흥민은 지난 7월 치른 아스널과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4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아스널전서 10호골을 썼다.

토트넘 선수로는 EPL 출범 후 로비 킨, 케인에 이어 3번째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다.

손흥민은 득점 경쟁도 이어갔다. 리그 10호골로 득점 랭킹 선두인 도미니크 칼버트-르윈(에버턴·11골)을 1골 차로 추격했다.

아스널전 1골 1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포함해 공식전 13골 6도움(EPL 10골 3도움·유로파리그 3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뉴스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프로스포츠 ‘무관중’ 전환

오늘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프로스포츠가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프로스포츠는 관중을 입장시킬 수 없다. 3단계가 되면 리그가 중단된다.

올해 프로스포츠는 코로나19로 무관중 개막했다가 확산세가 수그러들자 관중 입장 허용 범위를 늘렸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돼 무관중으로 다시 돌아

가게 됐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시즌이 종료된 가운데 대표적 겨울 스포츠인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연말까지 3주간 수도권 연고팀들의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 관계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2.5단계가 되면서 수도권 연고팀들은 오는 8일 화요일 경기부터 무관중으로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연고로 한 서울 SK, 서울 삼성, 인천 전자랜드, 고양 오리온, 안양 KGC인삼공사 등 5개 구단은 관중을 입장시킬 수 없다.

서울 연고인 SK가 6일 고양오리온과 홈 경기부터 무관중 경기를 선제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11일 안양실내체

육관에서 예정된 안양 KGC인삼공사와 울산 현대모비스전부터 무관중이 적용된다.

중대본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부산 KT를 비롯한 지방 구단도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무관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시즌을 모두 마친 프로야구는 한창 시상식 시즌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가장 규모가 큰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준비 중인 KBO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돼 집합·모임·행사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내부 논

의를 거쳐 참석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KBO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라 취해진 참석과 야구 팬 초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2.5단계 격상으로 중계진과 구단 관계자 등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수상자만 초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방안은 7일 내부 논의의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휴식기를 마치고 재개한 여자프로농구(WKBL)는 지난 2일부터 무관중으로 돌아간 바 있다.

무관중으로 개막했다가 지난달 22일부터 경기장 전체 수용인원의 30% 이내에서 관중 입장을 허용했던 WKBL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빠르게 대응했다.

프로배구도 지난달 24일부터 무관중 체제로 전환해 이번 조치에는 큰 영향이 없다.

김미희기자

류현진, 올-MLB팀 선발 투수 최종 후보 12명 선정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프로야구(MLB) 사무국이 선정하는 ‘올-MLB(ALL-MLB) 팀의 선발투수 부문 최종 후보로 이름 올랐다.

MLB네트워크는 7일(한국시간) 2020 올-MLB팀 최종 후보를 공개했다. 류현진은 선발 투수 12명의 후보 중 한 명으로 포함됐다.

올-MLB팀은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MLB 사무국은 미국프로농구(NBA)와 미국프로풋볼(NFL)처럼 메이저리그에서도 한 시즌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MLB팀을 뽑기 시작했다.

리그 구분 없이 이번 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후보 선수를 선출하고, 팬 투표 50%와 전문가 투표



50%를 합산해 최종 결정한다. 사무국은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퍼스트팀과 포지션별 차점자들로 구성된 세컨드팀으로 나눠 발표된다.

류현진은 LA 다저스 소속이던 지난해에도 세컨드팀 선발투수로 선정된 바 있으며, 토론토 이적 첫 해를 보낸 류현진은 올시즌 12경기에 등판해 5승2패 평균자책점 2.69의 성적을 냈다.

올해 올-MLB팀은 오는 10일 발표된다. 뉴스



황의조 선발...보르도, 브레스트 1-0 승리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지롱댕 보르도의 공격수 황의조(28)가 선발로 나와 소속팀의 승리를 도왔다.

황의조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티 아틀란티크에서 열린 브레스트와의 2020~2021시즌 리그앙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약 6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 파리생제르맹(PSG)과의 12라운드에 이어 2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한 황의조는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황의조는 후반 18분 니콜라 드 프레

빌과 교체됐다.

황의조는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앙 11경기(선발 8번·교체 3번)에 뛰었지만, 골 없이 도움 1개만 기록 중이다.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보르도는 후반 39분 아텐 벤 아르파의 결승골로 브레스트를 제압했다.

최근 리그 3경기 무패(2승1무)를 달린 보르도는 승점 19점을 기록, 리그 10위에 자리했다.

반면 보르도와 비긴 브레스트(승점 18)는 리그 12위에 머물렀다. 뉴스

로하스, 요미우리행 보도

반박...“아직 결정 안했다”

일본 언론 “로하스, 요미우리와의 큰 틀에서 합의”

2020시즌 KBO리그 최고의 타자로 활약한 멜 로하스 주니어(30)가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계약에 합의했다는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데일리 스포츠는 7일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2020시즌 KBO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로하스가 요미우리와의 큰 틀에서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요미우리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1년 만에 결별한 헤라르도 파리를 대체할 강타자 외야수를 찾고 있었다. 이에 로하스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 영입에 성공했다”며 “한신 타이거스와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영입전에 뛰어들이지만 요미우리가 영입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로하스는 해당 보도에 발끈했다. 로하스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나는 2021년 어디에서 뛰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시즌 대체 외국인 선수로 KT 위즈 유니폼을 입은 로하스는 KBO리그 4년차인 올해 완성형 타자로 거듭



났다. 올 시즌 142경기에 출전한 로하스는 타율 0.349, 47홈런 135타점 116득점에 출루율 0.417, 장타율 0.680으로 활약했다. 홈런과 타점, 득점, 장타율 부문에서 1위에 올라 타격 4관왕에 등극했다.

올해 KBO리그 정규시즌 MVP도 로하스의 차지였다.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 로하스에 복수의 일본프로야구 구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로하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김민정기자